‘K리그 100경기’ 광주FC 허율, 홈팬에 승리 안기고 웃다

공격수서 센터백 전향…“어느 포지션이든 팀에 도움되도록 노력할 것”

“심장이 뛰는 한 허율답게 뛴다.”

광주FC 허율에게는 잊지 못할 100경기가 됐다.

허율은 지난 30일 제주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20라운드 경기를 통해 ‘통산 100경기 출장’ 기록을 이뤘다.

두현석-안영규-허율-김진호로 포백을 구성한 광주는 이날 신창무와 가브리엘의 골을 앞세워 2-1 승리를 거뒀다.

앞선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0-1의 무기력한 패배를 기록하면서 이정효 감독의 격노를 불렀던 광주 선수단은 이날 끝까지 가는 뒷심싸움을 벌이며 승자가 됐다.

2-1로 경기가 끝나면서 허율은 홈팬들 앞에서 승리와 100경기 출장의 기쁨을 두 배로 누릴 수 있었다.

“축구 인생에 기억에 남을 것이다”며 100경기 소감을 말했던 허율. 사연 많은 그에게는 한 경기 한 경기가 특별하다.

광주 금호고 출신의 허율은 2020년 ‘대형 신인’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프로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93㎝ 큰 키를 활용한 제공권은 물론 스피드까지 겸비하면서 특급 장신 공격수로 주목을 받았지만 프로 첫해 적응의 시간을 보내느라 고전했다.

성장통을 겪으면서 조금씩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그는 올 시즌에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했다.

공격수로 프로 첫 경기를 소화했던 그는 센터백으로 100경기를 채웠다.

허율은 시즌 중반 센터백으로 변신해 광주 수비를 책임지고 있다.

광주의 수비 위기 돌파를 위한 방안이자 이정효 감독의 특별한 눈이 만든 큰 변화다. 새로운 자리에서 팀 승리와 함께 100경기를 만든 만큼 허율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된 것이다.

허율은 “프로에서 100경기를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포항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그때는 졌었다. 100경기에서는 홈팬들하고 승리를 만끽할 수 있어서 좋다”며 “센터백 허율도 포워드 허율 만큼 큰 장점이 있는 것 같다. 팀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 힘들 때, 좋을 때 힘이 돼주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감독님, 지도자분들, 팀원들 팬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100경기 소감을 말했다.

센터백이라는 새로운 변화 속 시즌을 보내고 있는 허율에게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광주가 올 시즌 수비가 흔들리면서 순위 싸움에 비상이 걸린 만큼 철벽 방어를 위한 역할이 막중하다. 또 코리아컵에 이어 구단 첫 아시아챔피언스리그까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게 된 허율은 최선을 당해 그라운드를 누비겠다는 생각이다. 앞선 제주전 승리는 허율과 선수들의 간절함이 통했던 경기다.

허율은 “제주전은 ‘한번 미쳐보자’ ‘진짜 광주만의 축구 색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그것 하나였던 것 같다. 일관성 있게 우리의 슬로건 광주답게 심장이 뛰는 한 뛰겠다”며 “아직 내 포지션 변화는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광주FC는 오는 7일 강릉종합운동장으로 가 강원FC를 상대로 K리그1 21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올 시즌 센터백으로 변신한 광주FC의 허율(왼쪽)이 지난 6월 30일 제주와의 홈경기를 통해 100경기 출장을 이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양여고, 여왕기전국여자축구대회 ‘무실점·무패’ 우승

대회 3연패 달성

광양여고 축구부가 여왕기전국여자축구대회 ‘3연패’를 이뤘다.

광양여고는 최근 경남 합천에서 끝난 ‘제32회 여왕기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무실점·무패 행진을 하면서 3연패에 성공했다.

권영인 감독이 이끄는 광양여고는 화천정산고와 동부고를 상대로 각각 8골과 7골을 몰아넣으면서 8강에 올랐다. 동산고와의 8강전에서도 7-0 대승을 이룬 광양여고는 ‘라이벌’ 포항여전고와 결승행을 다퉜다.

광양여고는 후반 7분 나온 조혜영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32분 범예주의 슈팅이 맞고 들어간 자책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강적’ 울산현대고와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쳤다.

후반 중반까지 0-0의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지만 조혜영이 진혜린의 패스를 받아 상대 진영에 침투해 선제골을 장식했다. 후반 38분에는 교체 투입된 1학년 정하은이 왼발 감아차기로 울산현대고의 골망을 흔들면서 2-0을 만들었다. 그리고 광양여고는 남은 시간을 잘 막아내면서 ‘무실점 우승’을 완성했다.

광양여고 축구부가 최근 끝난 ‘제32회 여왕기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3연패를 달성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축구협회 제공〉

주장 조혜영이 5경기에서 12골을 폭발하면서 득점왕에 올랐고, 진혜린이 최우수선수상, 김채빈이 GK상을 받았다. 3연패를 지휘한 권영인 감독과 김효선·이슬기 코치는 각각 최우수감독상과 최우수코치상의 주인공이 됐다.

권영인 감독은 “대회 3연패라는 큰 업적을 달성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10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등 전관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정식 전남축구협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3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선수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유로2024 8강 대진…독일vs스페인 ‘미리 보는 결승전’

포르투갈·프랑스 격돌…호날두·음바페 ‘신구 골잡이’ 대결 관심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가 도니얼 말런(도르트문트)의 멀티골 활약을 앞세워 루마니아를 꺾고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8강에 합류했다. 튀르키예도 중앙수비수 메리흐 데미랄(알아흘리)의 멀티골이 터지면서 오스트리아를 잡고 8강행 막차를 탔다.

네덜란드는 3일 독일 뮌헨의 뮌헨 풋볼 아레나에서 열린 루마니아와 대회 16강전에서 3-0 대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이번 대회 마지막 16강전에서 오스트리아를 2-1로 꺾은 튀르키예와 오는 7일 베를린에서 8강전을 펼치게 됐다.

네덜란드는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1골 1도움을 작성한 코디 학포(리버풀)와 ‘교체 카드’ 말런의 멀티골로 짜릿한 대승을 완성했다.

네덜란드는 전반 20분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침투한 학포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먼저 골 맛을 봤다.

후반 38분에는 학포가 골 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뒤 골대 정면으로 이동한 말런에게 패스했고, 말런은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학포는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말런은 후반 추가시간 역습 상황에서 중앙선부터 페널티지역 정면까지 단독 드리블 뒤 오른발 슈팅으로 자신의 멀티골과 경기의 쐐기포를 쏘아 올리며 3-0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16강 대진 마지막 경기로 치러진 튀르키예와 오스트리아의 대결에서는 혼자서 2골을 책임진 센터백 데미랄의 활약을 앞세운 튀르키예가 2-1 승리를 거두고 8강행 막차에 올라탔다.

유럽축구연맹(UEFA)에 따르면 데미랄의 골은 역대 유로 대회 ‘최단 시간 득점’이다.

데미랄은 후반 14분 코너킥 상황에서도 골대 정면에서 헤더로 골 맛을 보며 자신의 멀티골을 완성했고, 이 득점은 결승골이 됐다.

한편, 네덜란드와 튀르키예가 16강전을 통과하면서 유로 2024 ‘8강 대진’이 모두 완성됐다.

한국시간 6일 오전 1시 슈투트가르트에서 스페인과 독일의 맞대결로 시작되는 8강전은 포르투갈-프랑스(6일 오전 4시·함부르크), 잉글랜드-스위스(7일 오전 1시·뒤셀도르프), 네덜란드-튀르키예(7일 오전 4시·베를린)의 순서로 펼쳐진다.

이번 대회 8강전의 하이라이트는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불리는 ‘전차군단’ 독일과 ‘무적함대’ 스페인의 맞대결로 꼽힌다.

독일(1972·1980·1996년)과 스페인(1964·2008·2012년)은 역대 유로 대회에서 나란히 3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최다 우승 공동 1위를 달리는 라이벌이다.

또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대결은 크리스티안 호날두(알나스르)와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의 ‘신구 골잡이’ 충돌로 팬들의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호남대 남자배구팀이 ‘2024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단양대회’ 남대B그룹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호남대 남자배구팀 제공〉

호남대, 남자배구팀 11년 만에 창단 첫 우승

전국대학배구 단양대회 B그룹서 목포대·우석대·구미대에 3연승

호남대 남자배구팀이 전국대학배구대회 B그룹 정상에 오르며 창단 11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호남대는 지난 1일 충북 단양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단양대회’ 남대 B그룹 리그에서 세트스코어 3-2(25-22, 24-26, 23-15, 25-18, 15-12)로 구미대를 꺾고 3연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A그룹, B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남자부 대회에서 호남대는 목포대와 구미대, 우석대와 B그룹에서 기량을 겨뤘다.

지난 6월 29일 첫 경기에서 목포대를 3-1로 누른 호남대는 이어 우석대를 3-0으로 이기며 연승에 성공했다. 그리고 구미대와의 경기도 승리로 장식하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유진현(3년)이 최우수선수상 ▲정지웅(2년)이 세터상 ▲김현민(2년)이 리베로상 ▲신대훈(1년)이 블로킹상을 수상하며 기쁨을 더했다.

한편 여자부 대회에서는 B조에서 속한 광주여대 배구팀과 호남대 여자배구팀이 나란히 2, 3위에 올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 콘서트 오페라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
일시 : 2024-07-26(금) 19:30
2024-07-27(토) 15:00,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문의 : 062-412-2502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Ⅲ 〈Romantic〉
일시 : 2024-07-18(목) 11:00,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